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서비스 사업 관련 욕구조사 결과

2020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여성가족부 지원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Gangbukgu Health Family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본 분석결과는 강북구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사업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11월에서 12월에 강북구 지역주민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missing data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162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한계(다양한 가족(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 등)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결과는 향후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방향성 및 내용에 적용할 계획이다.

육구조사
결과 및 분석

I. 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1. 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61명 응답자 중 91명(57%)이 “들어보았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들어봤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37명(23%)으로 조사대상자의 80%가 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는 욕구조사 시 지역주민 전체를 무작위로 하기 보다는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방법의 한계를 반영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외 20%는 “들어봤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다”(17명, 11%), “센터를 모른다”(15명, 9%)는 것으로 나타나 센터 및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1> 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

(N=161)

문항	항목	N (%)
강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	15명 / 9%
	들어봤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다.	17명 / 11%
	들어봤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37명 / 23%
	들어보았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다.	91명 / 57%
	기타	1명 / 1%

2. 센터 인지 경로

센터를 모른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를 대상으로 “센터를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 결과(<표 2> 참조), ‘이웃(친구)들의 입소문’(46명, 31%), ‘지역 내 주민센터, 구청 등’(35명, 24%), 인터넷 사이트(홈페이지 등)’(22명,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센터를 알리는 홍보자원이 되므로 프로그램 이용자 역시 홍보 전략에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공공기관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민센터, 구청 등 관련 기관을 이용한 홍보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 등 SNS를 활용한 홍보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표 2> 센터 인지 경로

(N=148)

문항	항목	N (%)
강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알게된 경로는?	지역 내 주민센터, 구청 등	35명 / 24%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13명 / 9%
	홍보물 (리플렛, 현수막)	6명 / 4%
	이웃(친구)들의 입소문	46명 / 31%
	인터넷 사이트(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22명 / 15%
	우연히 동네에 있어서, 혹은 지나가다가	11명 / 7%
	기타	14명 / 9%
	중복응답	1명 / 1%

3. 센터 프로그램 이용 여부

센터 프로그램 이용 여부(<표 3> 참조)와 관련 질문을 한 결과,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75명(49%)에게 참여 동기(<표 3-1> 참조)와 이용 빈도(<표 3-2> 참조), 이용 요일(<표 3-3> 참조), 프로그램 서비스 만족 이유(<표 3-4> 참조)를 조사한 결과, '가족생활 도움, 돌봄서비스'(35명, 41%), '교육프로그램 참여'(24명, 28%) 때문에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용횟수는 '월 3회 미만'(26명, 34%), '주 1~2회'(25명, 32%)가 많았다. 이를 통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이용 횟수는 일주일에 1회 정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슷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토요일을 이용한다(9명, 6%)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방법에 따른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유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질문 결과, '직원들의 친절함'(27명, 22%),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음'(25명, 20%), '접근성의 편의'(25명, 20%)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센터 직원의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대민 서비스 질은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센터 내 인적 관리가 보다 더 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센터의 연구와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 센터 프로그램 여부

(N=154)

문항	항 목	N (%)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 이용하고 있다. (아래 3-1번으로)	75명 / 49%
	과거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아래 3-5번으로)	25명 / 16%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 (아래 3-7번으로)	54명 / 35%

<표 3-1> 현재 프로그램 참여 동기

(N=86)

문항	항 목	N (%)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여가 활동을 위해서	13명 / 15%
	가족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서 (생활지원, 돌봄서비스 등을 받기위해서)	35명 / 41%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24명 / 28%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9명 / 10%
	상담을 받기 위해서	0명 / 0%
	기타	3명 / 3%
	중복응답	2명 / 2%

<표 3-2> 현재 이용 빈도

(N=77)

문 항	항 목	N (%)
센터를 한 달에 몇 회 정도 이용하는가?	월 3회 미만	26명 / 34%
	주 1-2회	25명 / 32%
	주 3-4회	7명 / 9%
	주 5회 이상	8명 / 10%
	기타	10명 / 13%
	중복응답	1명 / 1%

<표 3-3> 현재 프로그램 이용 요일

(N=160)

문항	항목	N (%)
주로 센터를 이용하는 요일은 언제인가? (중복선택 가능)	월요일	39명 / 24%
	화요일	23명 / 14%
	수요일	37명 / 23%
	목요일	25명 / 16%
	금요일	27명 / 17%
	토요일	9명 / 6%

<표 3-4> 현재 프로그램 서비스 만족 이유

(N=123)

문항	항목	N (%)
센터 서비스에 만족하신 점이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중복선택 가능)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음	25명 / 20%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음	19명 / 15%
	접근성이 좋음 (교통편리, 찾아가기 쉬움)	25명 / 20%
	시설이 쾌적함	23명 / 19%
	직원들이 친절함	27명 / 22%
	기타	4명 / 3%

또한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25명, 16%)고 응답 (<표 3> 참조)한 이들에게 과거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표 3-5> 참조), '교육 프로그램 참여'(18명, 33%), '가족생활 도움'(15명, 28%)을 꼽았다. 또한 왜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표 3-6> 참조), '시간이 맞지 않아서'(23명, 62%)가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이들이 요구하는 요일과 시간을 따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요일과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분석은 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표 3-5> 프로그램 참여 동기

(N= 54)

문항	항목	N (%)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기는 무엇인가? (중복선택 가능)	여가 활동을 위해서	6명 / 11%
	가족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서(생활지원, 돌봄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서)	15명 / 28%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18명 / 33%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7명 / 13%
	상담을 받기 위해서	0명 / 0%
	기타	5명 / 9%
	중복응답	3명 / 6%

<표 3-6>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N=37)

문항	항목	N (%)
예전에 센터를 이용하다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복선택 가능)	시간이 맞지 않아서	23명 / 62%
	프로그램 내용이 좋지 않아서	0명 / 0%
	원하는 프로그램이 적어서	5명 / 14%
	교통편이 불편해서	3명 / 8%
	시설설비가 불편해서	0명 / 0%
	직원들의 불친절해서	0명 / 0%
	기타	5명 / 14%
	중복응답	1명 / 3%

마지막으로 '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54명, 35%)고 응답(<표 3> 참조)한 이들에게 향후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3-7> 참조), 65%(44명)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용할 의사가 없다'(24명, 35%)고 응답한 이들은 '현재 필요를 못느껴서'(23명, 61%), '시간이 맞지 않아서'(7명, 18%)(<표 3-8> 참조)를 꼽고 있기 때문에 센터는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다각적으로 탐색해서 보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가족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센터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용해볼 의향

(N=68)

문항	항 목	N (%)
센터의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센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의향이 있는가?	있다.	44명 / 65%
	없다. (아래 3-8번으로)	24명 / 35%

<3-8> 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N=38)

문항	항 목	N (%)
앞으로도 계속 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7명 / 18%
	현재 필요를 못 느껴서	23명 / 61%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0명 / 0%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4명 / 11%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명 / 3%
	교통편이 불편해서	0명 / 0%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0명 / 0%
	기타	2명 / 5%
	중복응답	1명 / 3%

4. 센터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욕구 수준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낸 영역(<표 4> 참조)은 '가족관계(자녀문제나 가족갈등 문제해결, 가족관계 증진 지원사업)'(31명, 20%), '가족문화(가족여가프로그램)'(21명, 14%), '공동육아나눔터'(23명, 15%)로 나타났다. 2순위(<표 4-1> 참조)로는 '가족문화(가족여가프로그램)'(36명, 24%), '가족교육'(25명, 17%)이 우선

적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센터 내 기본사업인 '가족문화', '가족교육' 그리고 자녀문제나 가족갈등 문제해결, 가족관계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정서치료 프로그램' 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표 4> 센터 사업 우선순위 (1순위)

(N=155)

문항	항 목	N (%)
센터가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족관계 (자녀문제나 가족갈등 문제해결, 가족 관계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	31명 / 20%
	가족상담 (지역주민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제공)	21명 / 14%
	가족품앗이 (품앗이를 통한 재능나눔 및 자녀돌봄 나눔을 하는 사업)	11명 / 7%
	가족문화 (가족을 위한 취미, 여가, 체험 활동 등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29명 / 19%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21명 / 14%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의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육아공간 사업)	23명 / 15%
	지역사회연계(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함)	14명 / 9%
	기타	0명 / 0%
	중복응답	5명 / 3%

<표 4-1> 센터 사업 우선순위 (2순위)

(N=150)

문항	항 목	N (%)
센터가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족관계 (자녀문제나 가족갈등 문제해결, 가족 관계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	20명 / 13%
	가족상담 (지역주민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제공)	14명 / 9%
	가족품앗이 (품앗이를 통한 재능나눔 및 자녀돌봄 나눔을 하는 사업)	16명 / 11%
	가족문화(가족을 위한 취미, 여가, 체험활동 등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36명 / 24%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25명 / 17%
	공동육아나눔터 : 지역의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육아공간 사업	16명 / 11%
	지역사회연계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함.	17명 / 11%
	기타	0명 / 0%
	중복응답	6명 / 4%

표. 지역 내 주민모임 관련 욕구

센터의 사업 특성 상 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모임에 대한 욕구 파악을 실시하였다. 우선 최근 1년간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5> 참조), 82%(127명)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표 5-1> 참조) 61명(45%)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34명(25%)는 '관심은 있으나 모임 참여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대다수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을 보일 수 있으나,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이들 역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 파악이 좀 더 깊게 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최근 1년간 주민모임 참여 여부

(N=154)

문항	항목	N (%)
최근 1년간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예	27명 / 18%
	아니오	127명 / 82%

<표 5-1> 주민모임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

(N=136)

문항	항목	N (%)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	시간이 없어서	61명 / 45%
	관심이 없어서	15명 / 1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명 / 1%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4명 / 3%
	관심은 있으나 모임 참여방법을 몰라서	34명 / 25%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	4명 / 3%
	모임에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5명 / 4%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기가 부담되어서	3명 / 2%
	기타	3명 / 2%
중복응답	5명 / 4%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욕구 중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일 경우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6> 참조), '취미, 여가활동'(49명, 33%),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모임'(37명, 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주민모임 참여 선호도

(N=149)

문 항	항 목	N (%)
다음과 같은 주민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모임에 참여하겠는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모임	37명 / 25%
	자기계발을 위한 모임	36명 / 24%
	취미, 여가활동을 위한 모임	49명 / 33%
	친목을 위한 모임	7명 / 5%
	기타	1명 / 1%
	중복응답	19명 / 13%

Ⅲ.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 욕구

1.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

1) 영, 유아기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

영, 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 7> 참조), 과반수 이상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40명, 51.9%)을 꼽았다. TV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자녀양육 방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녀양육 관련 도서 역시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 및 가족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영, 유아기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

(N=77)

문항	항목	N (%)
귀하는 미취학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돌봄 시간 부족	13(16.9)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40(51.9)
	자녀를 돌볼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7(9.1)
	양육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정보부족	14(18.2)
	기타	3(3.9)

2) 아동기, 사춘기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

아동기,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 8> 참조), '학업성적관리 및 학습지도'(23명, 34%), '매체중독'(15명, 22%)을 꼽았다.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대다수가 '학업성적'과 '게임중독'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본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여긴다.

<표 8> 아동기, 사춘기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

(N=67)

문항	항 목	N (%)
귀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학업성적관리 및 학습지도	23(34)
	대화단절	3(5)
	미래설계지도	7(10)
	친구관계	10(15)
	매체중독(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등)	15(22)
	돌봄문제	6(9)
	기타	3(5)

2. 자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자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교육 프로그램'(36명, 31.3%)(<표 9> 참조), 2순위로 '문화 프로그램(40명, 36%)'을 꼽았다. 그 외 '아동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사업의 연계성과 서비스 제공이 좀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자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1순위)

(N=115)

문항	항 목	N (%)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1순위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 프로그램	36(31.3)
	문화 프로그램	26(22.6)
	아동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27(23.5)
	돌봄서비스	25(21.7)
	기타	1(0.9)

<표 9-1> 자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2순위)

(N=111)

문항	항 목	N (%)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2순위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 프로그램	28(25.2)
	문화 프로그램	40(36)
	아동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33(29.8)
	돌봄서비스	10(9)
	기타	0(0)

3. 자녀와 관련된 센터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1) 영, 유아기 자녀와 관련된 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영,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의 참여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 10> 참조), 36명(59%)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41명(82%)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경험, 추후 참여희망 여부

문항	항 목	(N=61)		(N=50)		(N=56)
		참여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N (%)	N (%)	N (%)	N (%)	N (%)
영유아기	영유아기 부모교육	36 (59)	25 (41)	41 (82)	9 (18)	56 (100)

또한 센터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의 참여 경험과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10-1> 참조), 67.1%(43명)가 참여한 경험은 없으나, 67.4%(29명)가 추후 참여 희망을 밝혀, 프로그램 내용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참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10-1> 영유아기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참석경험, 추후 참석희망 여부

문항	항 목	(N=64)		(N=43)		(N=63)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N (%)	N (%)	N (%)	N (%)	N (%)
영유아기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21 (32.8)	43 (67.2)	29 (67.4)	14 (32.6)	63 (100)

2)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와 관련된 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센터 내 아동기 자녀와 관련된 프로그램인 '아동미술치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1.4%, 38명)이 경험한 적이 없으나, 85.9%(61명)가 추후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또한 언어발달지원사업의 경우 72.9%(43명)가 참여한 적이 없으나, 64.5%(40명)이 추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 참조). 그리고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아동기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역시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1-2>, <표 11-3> 참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진행 중인 '꿈동이 예비학교'의 경우 35명(63.6%)이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59%(27명)가 기회가 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4> 참조).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미래설계 프로그램의 경우 68.6%(35명)가 참여한 적이 없으나, 60%(31명)가 향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센터 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발달주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일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자녀관계 향상과 자녀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보다 더 많이 개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11> 아동미술치료 참여경험, 추후 참여희망 여부

문항	항 목	(N=74)		(N=71)		(N=34)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N (%)	N (%)	N (%)	N (%)	N (%)
초등학령기	아동미술치료	36 (48.6)	38 (51.4)	61 (85.9)	10 (14.1)	34 (100)

<11-1> 아동기 언어발달지원사업 참여경험, 추후 참여희망 여부

문항	항 목	(N=59)		(N=62)		(N=53)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N (%)	N (%)	N (%)	N (%)	N (%)
성장단계	프로그램 내용					
초등학령기	언어발달지원사업	16 (27.1)	43 (72.9)	40 (64.5)	22 (35.5)	53 (100)

<표 11-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참여경험, 추후 참여희망 여부

문항	항 목	(N=66)		(N=68)		(N=39)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N (%)	N (%)	N (%)	N (%)	N (%)
성장단계	프로그램 내용					
초등학령기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31 (47)	35 (53)	62 (91)	6 (9)	39 (100)

<표 11-3> 아동기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 추후 참여희망 여부

문항	항 목	(N=66)		(N=66)		(N=38)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N (%)	N (%)	N (%)	N (%)	N (%)
성장단계	프로그램 내용					
초등학령기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25 (38)	41 (62)	59 (89.4)	7 (10.6)	38 (100)

<표 11-4> 아동기- 꿈동이 예비학교 참여경험, 추후 참여희망 여부

문항	항 목	(N=55)		(N=46)		(N=61)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N (%)	N (%)	N (%)	N (%)	N (%)
성장단계	프로그램 내용					
초등학령기	꿈동이 예비학교	20 (36.4)	35 (63.6)	27 (59)	19 (41)	61 (100)

<표 11-5> 청소년기-미래설계 프로그램 참여경험, 추후 참여희망 여부

문항	항 목	(N=51)		(N=52)		(N=57)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N (%)	아니오 N (%)	예 N (%)	아니오 N (%)	N (%)
청소년기	미래설계 프로그램	16 (31.4)	35 (68.6)	31 (60)	21 (40)	57 (100)

그 외 자녀관련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

- 미술 프로그램
- 직업 체험
- **심리상담 치료**
- **의사소통 상담 프로그램 (정서지원)**
- 스포츠(농구, 축구)
- 초등영어교육프로그램
- **아동심리상담**
- **학교생활 문제해결**
- **자존감 강화 교육**
- 노년설계
- 인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인생설계에 대한 프로그램**
- 진학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 **영유아 미술놀이**
- 독서토론
- 글쓰기 프로그램
- 퍼실리테이션
- 미술지도
- **자녀상담 프로그램**

IV. 가족지원 프로그램 욕구

1. 가족 내 스트레스

현재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12> 참조), '자녀관계 및 양육의 어려움'(30명, 21%), '가족 간 대화의 부족'(26명, 18.2%), '가족여가활동의 어려움'(25명, 17.5%)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족 관계의 어려움

(N=143)

문항	항목	N (%)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부부갈등	4 (2.8)
	자녀관계 및 양육의 어려움	30 (21.0)
	노약자·장애인 가족 부양의 어려움	5 (3.5)
	가정 내 폭력문제	1 (0.7)
	가족 간 대화의 부족	26 (18.2)
	권위주의적 가족구조	2 (1.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19 (13.3)
	가족여가활동의 어려움	25 (17.5)
	기타	9 (6.3)
	없음	22 (15.4)

2. 개인성장/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1) 개인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표 13>, <표 13-1> 참조), 1순위로 '자격증 취득'(44명, 28.6%), '가족교육프로그램'(41명, 26.6%), '가족문화프로그램'(31명, 20.1%)을 꼽았으며, 2순위로 '가족문화프로그램'(39명, 26%),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35명, 23.3%)를 꼽았다. 센터의 기본사업 방향성에 있어, 자격증 취득을 제외한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사업은 지역주민의 개인성장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표 13> 개인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 (1순위)

(N=154)

문항	항 목	N (%)
개인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은? (1순위)	가족교육 프로그램	41(26.6)
	가족문화 프로그램	31(20.1)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24(15.6)
	가족품앗이	4(2.6)
	자조모임	4(2.6)
	센터 축제 또는 행사	6(3.9)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바리스타, 정리수납)	44(28.6)
	기타	0(0.0)

<표 13-1> 개인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 (2순위)

(N=150)

문항	항 목	N (%)
개인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은? (2순위)	가족교육 프로그램	17(11.3)
	가족문화 프로그램	39(26.0)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35(23.3)
	가족품앗이	5(3.3)
	자조모임	6(4.0)
	센터 축제 또는 행사	16(10.7)
	자격증취득 프로그램(바리스타, 정리수납)	32(21.3)
	기타	0(0.0)

2)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 14>, <표 14-1> 참조), 1순위로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부모교육'(41명, 26.6%), '가족간 의사소통 방법 교육'(36명, 23.4%), '자녀돌봄프로그램(아이돌봄, 품앗이)'(19명, 12.3%)을 꼽았으며, 2순위 역시 비슷한 항목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센터 내 프로그램 주제 선정 시 '부모교육'과 '의사소통 교육'이 보다 더 많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돌봄과 관련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품앗이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양육을 함께 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라 여긴다.

<표 14>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 (1순위)

(N=154)

문항	항 목	N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1순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14(9.1)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부모교육	41(26.6)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교육	36(23.4)
	특수문제(가정폭력, 학대 등)에 대한 교육	0(0.0)
	아버지 교육	6(3.9)
	조부모 교육	4(2.6)
	자녀연령별 가족교육	6(3.9)
	가족문화 및 여가사업	14(9.1)
	가족상담	2(1.3)
	가족봉사단	0(0.0)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한부모 등)	12(7.8)
	자녀돌봄 프로그램(아이돌봄, 품앗이)	19(12.3)
기타	0(0.0)	

<표 14-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 프로그램 (2순위)

(N=147)

문항	항 목	N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2순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5(3.4)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부모교육	23(15.6)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교육	23(15.6)
	특수문제(가정폭력, 학대 등)에 대한 교육	3(2.0)
	아버지 교육	9(6.1)
	조부모 교육	4(2.7)
	자녀연령별 가족교육	17(11.6)
	가족문화 및 여가사업	21(14.3)
	가족상담	9(6.1)
	가족봉사단	4(2.7)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한부모 등)	16(10.9)
	자녀돌봄 프로그램(아이돌봄, 품앗이)	13(8.8)
	기타	0(0.0)

3. 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여부

1) 생애주기별 부모/부부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부모/부부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15> 참조), '부모교육'(28명), '중년기가족교육'(21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부모교육(92명)', '중년기가족교육(76명)', '노년기 가족교육'(72명) 순으로 참여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생애주기별 부모/부부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단계	프로그램 내용	참여 경험 여부(명)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오	예	아오	
청년기 신혼기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프로그램 (결혼을 앞두고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초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10	44	22	17	77
중년기	중년기 가족교육 프로그램 (중·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지식,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21	58	76	18	29
	부모교육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28	49	92	8	29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아버지 역할에 보다 충실 할 수 있도록 자녀와의 놀이 방법 및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양육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19	48	62	17	39
노년기	노년기 가족교육 프로그램 (건강하고 신나는 노년기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가족관계, 죽음준비, 건강한 생활, 알뜰한 소비 등 노년기에 겪게 되는 생활 사건에 가족들이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17	50	72	12	35

2) 센터 내 기본사업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센터 내 기본사업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16> 참조), '가족문화프로그램(가족한마음 운동회 등)'(39명), '공동육아나눔터'(38명), '아이돌봄지원서비스'(38명) 순으로 참여 또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추후 참여 의사가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문화프로그램(가족축제, 가족캠프 등)'(73명), '가족상담사업'(66명), '공동육아나눔터'(62명) 순으로 참여 또는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센터 내 기본사업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프로그램 내용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예	아요	예	아요	
기본 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즉 부부갈등, 이혼문제, 재혼가족 부모문제, 자녀양육, 원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17	43	66	22	34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놀이공간운영, 장난감 대여, 다채로운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38	38	62	18	42
	가족품앗이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학습, 체험활동 등을 함께 하여 자녀양육에 부담감을 더는 프로그램)	16	56	58	21	38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한 돌봄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시키는 사업)	38	45	54	23	32
	가족한마음 운동회, 가족축제,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등	39	37	73	18	25
	1인 가구 프로그램 (1인 가구의 생활도움 지원 및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집단을 구성하여 여가활동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진행)	14	35	32	18	66
	자원봉사 (재능기부, 노력봉사 등 센터업무·프로그램·행사 진행 보조 활동 등)	25	45	61	29	23

3) 센터 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센터 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17> 참조),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비다문화가족인 경우가 많아 참여 경험 및 희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조모임'(19명), '한국어교육사업'(18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향후 '사례관리사업'(21명), '멘토링사업'(20명) 순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센터 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추후 참여 희망 여부

	프로그램 내용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참여 희망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다문화 가족 사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중국전통 춤, 연극, 다양한 나라 요리 프로그램, 국적취득 대비 학습 등 다문화가족 동아리 운영)	19	36	36	15	67
	한국어교육사업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	18	29	35	16	72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 하도록 도움)	11	35	34	18	67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13	30	29	21	63
	방문교육지원사업 (집합 한국어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방문교육지도사가 파견되어 서비스를 제공)	17	28	34	16	62
	멘토링사업 (이주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와 입국초기 결혼 이민자, 또는 선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도움)	8	34	28	20	65
	취업지원 교육 및 연계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에 연계)	9	37	35	14	63

V.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조사는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162부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8>, <표 19>, <표 20>, <표 21>, <표 22>, <표 23>, <표 24>, <표 25>, <표 26>, <표 27>과 같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다수는 여성(143명, 88.3%)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48명, 29.6%), '40대'(39명, 24.1%), '50대'(37명, 2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는 '미아동'(39명, 24.1%), '번동'(30명, 18.5%), '수유동'(22명, 13.6%)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25년 미만'(36명, 22.%)의 거주기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대졸'(70명, 43.2%), '고졸'(63명, 38.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대다수(133명, 82.1%)가 기혼상태였으며, 가족원수는 3명(43명, 26.5%), 4명(43명, 26.5%)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가족형태는 49.4%인 80명이 부모-자녀 가족형태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30대 이상이 160명(28.5%)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48.2%인 78명이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7.2%인 44명이 주부(가사활동)였으며, 월평균소득은 42%인 68명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조사대상자의 성별

(N=162)

문항	항 목	N (%)
성별	남성	13 (8.0)
	여성	143 (88.3)
	미응답	6 (3.7)

<표 19> 조사대상자의 연령

(N=162)

문항	항 목	(%)
연령	20대	5 (3.1)
	30대	48 (29.6)
	40대	39 (24.1)
	50대	37 (22.8)
	60대	25 (15.4)
	70대 이상	1 (0.6)
	미응답	7 (4.3)

<표 20>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N=162)

문항	항목 (OO동 기준)	N (%)	항목 (거주기간 기준)	N (%)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미아동	39 (24.1)	1년 미만	3 (1.9)
	번동	30 (18.5)	1~3년 미만	23 (14.2)
	수유동	22 (13.6)	3~5년 미만	15 (9.3)
	우이동	19 (11.7)	5~10년 미만	26 (16.1)
	인수동	8 (4.9)	10~15년 미만	26 (16.1)
	삼각산동	6 (3.7)	15~25년 미만	36 (22.2)
	삼양동	5 (3.1)	25년 이상	17 (10.5)
	번1동	3 (1.9)	미응답	16 (9.9)
	송중동	3 (1.8)		
	번2동	2 (1.2)		
	수유3동	2 (1.2)		
	쌍문동	2 (1.2)		
	정릉동	2 (1.2)		
	도봉구	1 (0.6)		
	방학동	1 (0.6)		
	송천동	1 (0.6)		
	수유1동	1 (0.6)		
	수유2동	1 (0.6)		
	종암동	1 (0.6)		
	창동	1 (0.6)		
	창2동	1 (0.6)		
	창3동	1 (0.6)		
미응답	9 (5.6)			

<표 21>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

(N=162)

문항	항목	N (%)
학력수준	중졸이하	14 (8.6)
	고졸	63 (38.9)
	대졸	70 (43.2)
	대학원이상	8 (4.9)
	미응답	7 (4.3)

<표 22>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

(N=162)

문항	항목	N (%)
결혼상태	미혼	10 (6.2)
	기혼	133 (82.1)
	동거	1 (0.6)
	사별	3 (1.9)
	이혼/별거	8 (4.9)
	기타	1 (0.6)
	미응답	6 (3.7)

<표 23> 조사대상자의 가족원수 및 가족구성 형태

(N=162)

문항	가족원수		가족형태	
	항목 (가족원수기준)	N (%)	항목 (가족형태기준)	N (%)
가족원수와 가족형태	1명	1 (.6)	1인가구	3 (1.9)
	2명	17 (10.5)	부부	19 (11.7)
	3명	43 (26.5)	부모자녀	80 (49.4)
	4명	43 (26.5)	한부모자녀	16 (9.9)
	5명	15 (9.3)	조부모+부모+자녀	11 (6.8)
	6명 이상	6 (3.7)	노부부	0 (0.0)
	미응답	37 (22.8)	기타	6 (3.7)
			미응답	27 (16.7)

<표 24> 조사대상자의 자녀연령

(N=562)

문항	항목	N (%)
자녀연령 (있는대로)	0~3세	34 (6.1)
	4~6세	29 (5.2)
	7~12세	87 (15.5)
	13~19세	99 (17.6)
	20대 이상	108 (19.2)
	30대 이상	160 (28.5)
	40대 이상	16 (2.9)
	미응답	29 (5.2)

<표 25>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

(N=162)

문항	항 목	N (%)
주거형태	단독주택	28 (17.3)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78 (48.2)
	아파트	49 (30.3)
	비 거주시설 (고시원, 점포주택, 복합용도 주택 등)	1 (0.6)
	미응답	6 (3.7)

<표 26> 조사대상자의 직업

(N=162)

문 항	항 목	N (%)
직업	가사	44 (27.2)
	학생	3 (1.9)
	무직	21 (13.0)
	기능직, 기술직	6 (3.7)
	판매직, 서비스직	9 (5.6)
	사무직, 행정직	12 (7.4)
	전문직, 자유직	23 (14.2)
	경영직, 관리직	0 (0.0)
	자영업	5 (3.1)
	기타	32 (19.8)
	미응답	7 (4.3)

<표 27>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

(N=162)

문항	항 목	N (%)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68 (42.0)
	300~499만원	47 (29.0)
	500~699만원	13 (8.0)
	700~899만원	14 (8.6)
	900만원 이상	1 (0.6)
	미응답	19 (11.7)

<기타 의견>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한 결과(<표 28> 참조),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4명),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혹은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3명)을 좀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 28> 기타 의견 (자유롭게 서술)

문항	항 목	N (%)
기타 의견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	4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혹은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3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학습, 체험 등)	2
	시간 선택적 프로그램(단절여성, 탈북 가정 등)	2
	다양한 프로그램 추가	2
	부모교육	1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추가	1
	홍보 강화, 시스템 구축(one-stop)	1

* 해당문항은 개인의 생각을 작성하는 문항이며 162중 17명만 의견을 작성함. 해당 의견을 종합하여 항목으로 기재하였으며 미응답이 많아 백분율로 나타내지 않았음.

결론

1. 센터 기본사업(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친화문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본 조사결과 센터 내 프로그램으로 1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녀문제나 가족갈등 문제해결, 가족관계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른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자녀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부모교육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갈등 및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문화사업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공동체 문화 확대를 위한 가족축제 사업 확대 필요

센터 내 기본사업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은 '가족한마음 운동회, 가족축제,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들과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강북구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문화체험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자녀양육 및 가족 내 의사소통 훈련 사업 확대 필요

본 조사결과 가족 내 스트레스로 '자녀관계 및 양육의 어려움'과 '가족 간 대화의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센터에 요구하는 프로그램 역시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부모교육'과 '가족간 의사소통 방법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족교육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 중/노년기 가족지원 사업 확대 필요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제외하고, 중년기와 노년기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갱년기 전 후 등 성인기 자녀를 둔 중/노년기 남성과 여성을 위한 가족사업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4) 함께 하는 가족돌봄 문화 형성 필요

조사 결과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과 더불어 지역 내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동육아나눔터가 향후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5)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개인/가족상담의 확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및 여가문화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개별적인 문제 혹은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문제를 포함한 부부간의 갈등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 치유 상담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높다.

6) 다문화가족의 실제적인 욕구파악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본 조사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더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주로 한국어교육과 자조모임을 참석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참여의사가 있다고 한 사업은 '사례관리'와 '멘터링사업'이다. 즉 개별적인 접근, 진단, 지원이 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들에 대해 좀 더 다가가는 태도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7) 프로그램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시간의 진행 필요

본 조사결과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프로그램 시간이 맞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이에 따라 평일 저녁과 주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참여 의사가 있으나 참여할 수 없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다 더 면밀히 살피고, 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좀 더 요구된다 할 수 있다.

2. 센터의 홍보 확대

본 조사결과 주민모임 등에 대해 관심은 많으나 참여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점에 비추어 앞으로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 홍보가 보다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센터를 어떻게 알고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웃들의 입소문과 지역 내 주민센터, 구청 등을 통한 홍보로 알게 되었다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재 센터 회원 관리는 앞으로 센터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민센터, 구청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곳에 센터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최근 SNS를 통한 홍보 방법 역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센터 종사자의 힐링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필수

센터 프로그램에 왜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다는 것보다 더 많이 꼽은 것이 '직원들의 친절함'이다. 이것은 센터 프로그램의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결국 지역주민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번아웃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종사자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힐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가족전문가로서 발돋움하고 설 수 있도록 가족전문역량강화 교육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 선 : 모든 가족이 이웃되는 행복공동체 실현
비 전 : 가족에게 신뢰받는, 가족과 소통하는, 가족과 더불어 성장하는
우리동네 ONE-STOP 가족서비스 선도기관
핵심가치 : 성장 · 소통 · 평등 · 공생

발 행 처 :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발 행 일 : 2020년 3월

주 소 :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9길 6

연 락 처 : 02 - 987 - 2567

홈페이지 : <https://gangbuk.familynet.or.kr>